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DEEPFAKE

가제 : 딥페이크, 난 아니야

저자 : Sarah Darer Littman

출판사: Scholastic Press

발행일: 2020년 10월 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10년 전부터 온라인 그루밍 범죄, 집단 따돌림등 언제나 현실적인 청소년 문제들과 기술 발전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루워 왔던 작가가 최근 또 다른 디지털 범죄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소설**

다들 한번쯤 '딥페이크 (deepfake)'라는 신조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주로 디지털 성범죄나 가짜 뉴스, 악의적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 사용 되고 있는 신기술이다. 만약 이 끔찍한 기술로 누군가가 내 얼굴이 등장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라 시몬스와 월 호흐만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십대 소녀소년들이다. 그들은 과연 누가 졸업생 대표가 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린포인트 고등학교의 우등생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십 사이트인 '소문에 따르면 (Rumor Has It)'이라 곳에 다라가 등장해 월을 저격하는 동영상 한 편이 게재 되었다. 하지만 다라는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말 결백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음모를 꾸민 것일까?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섬뜩하고도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익명 웹사이트인 '소문에 따르면'에는 그린포인트 고등학교와 관련된 온갖 소문들이 다 올라와 있었다. 퀴즈를 피하기 위해 누가 화재 경보를 울리고 달아났는지, 누가 누구에게 굴욕적인 실연을 당했는지 등등 그린 포인트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가장 반향을 일으킨 소식은 바로 졸업생 대표 연설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라 시몬스와 월 호흐만이 비밀리에 사귀고 있다는 특종이었다. 또한 다라와 월 다음으로 유력한 졸업생 대표 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월 호흐만의 가장 친한 친구인 MJ가 역시 남몰래 월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한편 월은 아빠의 간절한 소원에 따라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대학에 지원하기 이미 이년 전부터 아빠가 사다 준 스탠포드 대학교 후드를 입고 다녔다. 하지만 이렇게

유난을 떨며 대학교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은 비단 월 뿐만이 아니었다 그린포인트 고등학교에 다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일찌감치 해당 학교 티셔츠를 입고 다녔고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 하지만 월의 비밀 여자 친구인 다라는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전혀 달랐다. 다라는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었고 독립적이었으며 언제나 남들 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고 최근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합격하고서도 전혀 우쭐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원래 그저 친구 사이였는데 지난 여름 캠프에서 상담가로 활동하던 중 사랑에 빠져 비밀스럽게 데이트를 시작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문제의 그 사이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둘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월은 혹시 MJ가 자신의 파티에서 말도 없이 떠나 버린 이유가 카네기 멜론 대학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자신의 비밀 연애 때문인지 마음이 쓰였다. 다라 역시 월의 가장 친한 친구인 MJ와 원래 사이가 그리 좋진 않았던 터라 MJ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알리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웠다.

한편 MJ는 월을 계속 피해 다니고 있었다. MJ는 월과 함께 참여하는 방과 후 로봇 수업에 참가하는 대신 부잣집 아이들이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학교 학습실에 처박혀 있었다. MJ는 루머 사이트에 월의 소식이 올라온 뒤로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가 대학에 떨어졌서가 아니라 월에게 차인 불쌍한 여자애라며 소근거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유치원 시절부터 월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부모님들까지 둘을 결혼 시키겠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긴 했지만 그에 대해 연애 감정 같은 것은 확실히 느껴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월의 연애에 질투 같은 감정은 별로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MJ가 정말 화가난 이유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 믿었던 월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지난 토요일 밤 자신의 파티에서 허접한 루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입시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동안 다라와 월은 더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에 따르면'에 다라가 등장해 월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쳤다고 폭로하는 한 영상이 게재 되었다. 하지만 다라는 결코 그런 영상을 찍은 적도 없고 월의 대학 입학 시험 점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월과 다라의 사이는 오해와 원망으로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둘의 대학 입학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대 기술의 위험성과 십대 문화의 특성에 대해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사라 대러 리트만 (Sarah Darer Littman) 평단의 찬사를 받은 은 비평을 받은 『Backlash』, 『Want to Go Private?』, 『Anything But Okay』, 『Purge』 등의 저자이며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뉴스 칼럼니스트이며 We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및 Yale Writers 'Conference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다.

제목 : MIDNIGHT ON STRANGE STREET

가제 : 한밤중 이상한 길가에서

저자 : KM Ormsbee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20년 1월 21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모험 소설



*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미스터리 소설이자 우정과 용기에 대한 사랑스런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으로 가득한 모험담.”- 작가, 애슐리 헤린지 블레이크

* “근 미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과 음모, 스포츠 애호가와 판타지 독자 모두를 만족시킬 책”-북 리스트

* “너무 재미있는 소설”-커커스 리뷰

여름 막바지에 접어든 9월 21일 오후 여덟 시, 텍사스의 캘러웨이 마을 시더 레인 지역에 의문의 정전 사고가 일어났다. 오븐과 식기 세척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고 컴퓨터와 텔레비전은 그대로 전원이 나가버렸다. 그때 마침 집 근처에 있던 헤르난데즈씨는 길 가운데에서 빛나고 있는 이상한 파란 불빛을 보았다. 그 불빛은 마치 불처럼 활활 타올랐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달으려는 듯 불길을 사방으로 뿜고 있었다. 겁에 질린 헤르난데즈씨는 자신의 손 끝에서 빛나고 있는 푸르스름한 은빛이 감도는 불빛을 보고 너무 놀라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 들어갔다. 다른 주민들 역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번지지는 않고 한 자리에서 계속 활활 타오르고만 있는 이상한 불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얼마 후, 소방관들이 도착했고 거대한 물줄기를 그 파란 불길에 향해 쏟아냈지만 불은 약해지기는커녕 전혀 사그라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체다 레인 지역의 건물주 연합 회원들은 전기 공급 업체에 연락을 하자고 제안했고 헤르난데즈씨는 지역 대학의 물리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 동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불길이 나타난 지 딱 한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저절로 사라졌고 동시에 전기가 다시 들어온 일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지만 그 파란 불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후에 이 일을 두고 시더 레인에 내린 저주라고도 했고 그냥 전설 같은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 후 마을 주민들 모두가 차례로 이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새로 이곳에 이사 온 사람들도 길게 머물지 못하고 곧 떠나버렸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신들은 저주나 도시 전설 따위는 믿지 않는 다며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 두 가구들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 집들은 텅 빈 채, 그 이상한 길에서 좋은 주인들을 만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새 이웃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바로 레베카 실스와 엄마 레베카가 아빠와 이혼하는 바람에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엄마의 고향으로 온 애버리 밀러였

다. 애버리와 레베카는 이상하리만큼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새로 리모델링까지 마친 번듯한 집을 사게 되어 뿔 듯이 기뻐했다. 애버리는 당장 너른 뒷마당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곳에서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들떠 있던 대니 허쉬를 만나게 되었다.

대니는 애버리에게 ‘글로우 보드’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여기서 ‘글로우’란 캘러웨이 마을에서 처음 발견 된 미스터리한 물질을 가리키는 말로 여러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유용한 자원이었는데, 글로우 보딩은 바로 이 글로우라는 물질을 동력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스케이트 보드 기술이었다. 대니는 텍사스 최고의 글로보딩팀 ‘정어리들’을 이끌고 있는 팀의 주장이었고 이번 여름 열릴 가장 큰 경기에서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애버리는 대니를 통해서 정어리들의 멤버들인 쌍둥이 남매 바스티안, 롤라와도 알게 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중 바스티안은 이상한 마을에 사는 정어리들의 멤버라는 이유로,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이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스티안과 쌍둥이 남매인 롤라 역시 글로우보드 경기 그 이전의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쌍둥이 텔레파시’ 그 이상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과 오직 생각만으로도 눈 앞에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정말 정상이 아닌 것은 아닌지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편 대니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음 경기에서 승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팀원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정어리들은 경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상한 메시지를 받게 되고 주변에 수상한 요원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다. 또한 ‘글로우’가 전쟁과 관련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정어리들은 과연 마을의 자원을 지키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K. E. 옴즈비 (K. E. Ormsbee)는 오리건 주에 거주하며 글을 쓰고 팟 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을 만들고 있다. 전작으로는 『the Water and the Wild series』, 『The House in Poplar Wood』가 있다.